

세계 평화는 국제적인 운동을 요구한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부시의 사악한 “악의 축” 연설 훨씬 이전에 그의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와의 전쟁”¹⁾에서 목표물로 삼았다는 명백한 표시들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딱지 붙였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²⁾ 위협하기도 했다.

1년 6개월 이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없었다. 더욱이 우익 의원들의 압력으로 부시 행정부는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합의 된 틀 The Agreed Framework (제네바합의)”³⁾이라 알려진 합의를 지금 재평가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곧 대화를 재개할 것이란 보도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도 1994년에 미국을 일방적으로 폭격할 뻔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부시가 지금 재검하고 있는 “합의된 틀”이 새로운 한국전을 가까스로 막았다.

한마디로 미국의 최상층 결정권자들의 정신은 군사적으로 미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의 위협을 공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광기가 새로운 전쟁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이 주말 우리는 여기 모여 있다. 아래에서 나는 이 질병의 특징을 명확히 밝히고 가능한 치료를 제시하고자 희망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와 더불어 부시와 동료들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무장시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침략해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정부의 전복을 시도한다; 그들은 국제 형사법원으로부터 탈퇴하여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과 교토 의정서를 폐기했고 1972년 생물전쟁 조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군비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내가 부시와 동료라고 말할 때 우둔한 사람 한 명과 그 친구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대표하고 있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말한다. 조지 부시건 알 고어건 백악관에 누가 들어 앉을지라도 군국주의는 오랫동안 미국 외교정책과 경제생산의 중심이었고 우리가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부시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미의회는 164개국 서명한 핵실험금지조약을 거부했다. 최근엔 의회 기금으로 미국은 141개국에 25만명의 미군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지를 찾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배치하려고 시도했다.

폭력의 역사적인 실례

미국이 국가로 조직되기 전에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 백인들은 토착인으로부터 땅을 빼앗기 위해 토착인을 말살했다. 16세기부터 시작해 주변부는 유럽에 기반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히 동화되었다. 지금 멕시코이건, 페루 혹은 미국이건 패턴은 동일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수천만명 집단학살하는 외에 이들 식민지 이주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천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노예무역에서 살해된 아프리카인들은 1천5백만에서 5천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노예가 된

수천만명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시초부터 미국은 생물전을 실천했다.

제프리 암허스트의 이름을 딴 마을들이 마사츄세츠, 뉴욕 그리고 뉴햄프셔에 오늘날까지도 있는데 그는 백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토착인들을 땅에서 제거시키는 방법을 고안했기 때문에 칭송되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천연두 바이러스가 묻은 담요를 줌으로써 그들은 돕는다고 가장하며 마을들 전부를 없애버렸다. 미국 혁명 이후의 세기에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체계적으로 도살되었고 극소수의 생존자들은 인디언 보류지에서 살도록 강요되었다.

1848년에 미국은 “앵글로-색슨 민주주의”의 확장과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명하에 멕시코의 거의 절반을 합병하였다. 자카리 테일러 장군의 명령으로 멕시코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수십명의 미군 병사들이 처형되었을지라도 미국의 팽창주의는 가속화되었다.

19세기 말에 제조업자들이 국제적인 시장을 찾게 되었을 때 (인디언 전쟁에서 경험을 쌓은 남자들에 의해 지도되면) 미국은 필리핀을 정복했다. 루손섬에서만 60만명의 필리핀인들이 전쟁 혹은 질병으로 죽었다. 윌리엄 맥킨리는 더 나아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가장 가혹한 필요 조치를 취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모든 장로교 선교사단의 지도자는 이 필리핀인 학살을 “세계 문명화에서의 위대한 한 단계”라고 환영했다. 테오도어 루즈벨트에게 필리핀에서의 학살은 야만과 미개의 검은 혼돈을 극복하는 문명을 위한 것이었다. 1900년에 인디아나의 상원의원 알버트 베버리지는 식민지 이주자들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인종이다, 우리는 세계를 문명화하는 신에게서 부여받은 우리 인종, 피신탁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문명이란 어떤 것인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마크 트웨인과 반제국주의자 연맹이 미국 정책을 변화시켜보려고 시도했지만 제국주의적 야심은 너무 강했다. 1898년과 1934년 사이에 미국 해군은 혼두라스를 7번, 쿠바를 4번, 니카라과를 5번, 도미니카 공화국을 4번, 아이티와 파나마를 각각 2번, 과테말라 1번, 멕시코 3번 그리고 콜롬비아를 4번 침략했다. 1915년에 미군이 농민반란(4)을 진압했을 때 5만명 이상의 아이티인들이 살해당했다. 해군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간단히 말해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곳으로 보내졌다.

1929년 대공황 이래로 군국주의는 식민지 정복기구 이상이 되었다: 군국주의는 세계 경제침체에 대한 일차적인 해결책이 되었다. 1948년 이래 15조달러 이상을 군대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부의 축적을 돈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모든 공항, 고속도로, 다리, 건물, 기계, 상수도, 발전소, 학교, 병원, 쇼핑센터, 호텔, 학교, 자동차 등등! 보다 더 많다). 만약 우리가 미국방부 예산 (2002 회계연도에 3460억불이상), 외국에 대한 군사원조, 퇴역군인 연금, NASA의 군부분 그리고 에너지부의 핵무기예산을 과거 군비지출로 초래된 빚에 대한 이자에 더한다면 미국은 매년 군대에 6700억달러, 일본에 1백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군비 예산은 세계 나머지 큰 군비 지출국 15개국의 총합보다 커서, 세계 군비의 36%를 차지한다. 그래서 주요한 문제는 미국이지만 세계적인 군비지출의 거의 2/3는 미국 밖에서 일어난다. 최근에 일본과 독일의 군국주의는 부활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국방예산이 2003년에 12.7% 증가해 141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

미국 군국주의와 아시아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부시의 “악의 축”이 전부 아시아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역사가들이 “냉전”이라고 말하는 미국 (그리고 소련)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전쟁에서 미국이 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한 곳은 아시아였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지 3년 동안에 3-5백만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학살당했고,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은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을 사용하여 2백만명을 죽였고 수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회복을 바라는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라고 듣기 좋게 말하는 화학 전쟁은 체계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산탄형 폭탄은 죽이기 보다는 불구로 만들게끔 고안되었고 40만톤 이상의 네이팜탄이 잘못 이라곤 국가의 독립을 원한 것뿐인 사람들에게 떨어졌다. 이 두 아시아 전쟁에서의 학살 비율은 중앙 아메리카전쟁에서의 학살의 약 1000배이고 “냉전”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의 미군 개입에 의한 학살의 200배 이상보다 높다.

더욱더 최근엔 무기 시장으로서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냉전의 종식 후에 북아메리카, 서유럽, 이전의 소련과 소비에트 블록 국가들에서 군수품의 요구가 줄어들자 무기 공급자들은 다른 시장을 찾았다. 미국 무기 수출은 1989년 80억 달러에서 1991년 4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영국 무기 수출은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거의 1000% 증가해 47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 전략 연구소에 의하면 “1990년과 1997년 사이에,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방위산업 수입액은 거의 3배로 뛰어 11.4%에서 31.7%로 되었다.

1988년에 미국 무기 수출의 10%만이 이지역으로 왔다. 1997년까지는 이것이 25%로 증가했다.6) 동아시아내에서 남한의 1997년 군비 지출은 (148억 달러) 거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타일랜드7)의 군비를 합친 것 만큼이나 큰 규모였다.7)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군비증강은 지체되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최근에 프랑스제 잠수함 3대를 9억7천2백만 달러에 구입하고 남한이 40대의 F-15 전투기를 42억 3천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급격히 국방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 지역에서 군비 지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한의 군대 소장이고 국방부 무기 통제국의 지휘자인 김국헌에 의하면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17개국 중 7개국,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28개국 중 17개국, 화학무기를 가진 16개국 중 10개국 그리고 생물 무기를 가진 13개국 중 8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었다8).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5척의 군함이 최근에 아라비아해로 파견되었다. 2002년 4월 일본 제2야당 지도자 이치로 오자와가 일본은 핵무기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중국보다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최근에 국방부장관, 신조 아베가 일본은 합법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겨우 일주일 후에 일본 국방장관인 야수오 파쿠다가 도쿄는 핵무기 금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냉전의 종식으로 평화의 뚝을 수확하기 보다 동아시아는 지역적 핵무기 경쟁과 재래식 무기의 막대한 증강이 초래될 궁지에 처해 있다.

위 역학으로 볼 때 평화운동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대대적이고 전투적인 평화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치 엘리트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국가의 힘을 확대하며 거대한 방위 계약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출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흐름이 수빅만에 있는 거대한 기지로부터 미국을 추방한 필립핀의 예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시아의 반군국주의 운동의 중요한 유행선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군이 필립핀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볼 때 군사적인 정신이상이라는 질병치료의 긴급한 필요성을 숙고해야 하며 증상만 단순히 고쳐서는 안된다. 전략적인 사회운동으로 위기의 순간에 장기적인 개념(아이디어)를 주입해야 한다. 현존하는 세계 체제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군국주의는 인간의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천벌이며 우리가 힘들게 성취한 것을 파괴하게끔 위협한다. 군국주의를 위한 추진력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 안에 있고 증상이 아니라 이 질병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화운동은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진짜 악의 축

궁극적으로 우리는 진짜 악의 축은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그리고 IMF라고 인식해야 한다. 식민지에서의 선배들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위장한다. “자유” 무역, IMF “긴급 구조” 그리고 세계은행 “보조”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세계 체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아니라 더 많은 가난을 의미했다.

역사적으로 세계체제 핵심부의 번영과 민주주의의 확장과 제3세계의 가난과 독재 사이엔 역관계가 성립한다. 노예 상태의 이 변증법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문명(개화)은 주변부에서 비참함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지혜에 의하면 핵심부에서 민주주의가 증가하면 제3세계를 향해 더 개화된 정책이 나오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삶의 조건이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통적인 지혜를 최근에 주창한 인물은 프란시스 푸쿠야마인데 그의 가설은 현재의 유럽/아메리카의 정치제도는 인간 발전의 소망된 중점으로 역사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푸쿠야마는 나폴레옹이 프러시아 군주제를 패배시켰던 1806년 예나 전투로 자유민주국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민주 국가에서의 시민권의 원칙과 특권은 확장되어야만” 하고 “인간의 사회적인 진보에서 창안될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믿는다.

푸쿠야마에게 프랑스 혁명 원칙의 공간적 확장은 나머지 세계가 진보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런 원칙의 확장이 제3세계의 의존과 빈곤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은 유럽 중심이었던 초기 세계를 국제적인 지배로 추진시켜 군사적인 힘을 국가들에 집중시켰고 세계의 부를 거대기업과 은행의 손에 축적시켰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으로 생산된 경제와 정치체제의 세계적인 침투는 확실히 급속한 경제 발전과 우리가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형태 몇가지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라고 논할 수 있다. 미국이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 중 하나임은 물론이고 동시에 대량학살과 노예제도 위에 세워진 백인 유럽 정착자들의 식민지라는 사실은 역사의 변증법적인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의 삶의 댓가는 무엇인가? 제3세계에서의 노예제도? 생태적인 파괴? 군국적인 정신이상?

남에서 착취를 강화시키며 북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증가한다라는 역학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하노이에 있는 르로이 탑위에 프랑스가 미국에게 준 (현재 뉴욕 항에 있는) 것과 같은 자유의 여신상의 복사품을 놓았을 때 특별히 생생한 예를 보여 주었다. 르로이는 1418년 베트남에서 몽골을 몰아 낸 나라의 지도자였다. 오늘날 그는 여전히 국가적인 영웅으로 여겨지는데 그의 신화는 돌아온 검 호수 (Sword Lake)를 포함하고 있다. 검 호수에서 그가 몽골을 몰리치는데 사용했던 검을 주었던 황금 거북이 다시 나타나 검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영국 역사에 있었던 아더 왕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르로이 탑위에 자유의 상을 놓았던 것은 베트남인들에게 확실히 모욕이었으며 이것은 프랑스 혁명 원칙의 공간적 확장이 제3세계에 어떻게 모욕적인가를 나타내준다.

프랑스 식민주의는 잔인했고 치명적이었다. 인도차이나인들은 베트남인들의 시체가 그 나라의 광대한 고무농장에서 나무의 비료로 사용되었던 것을 회상한다. 과시즘에 항거해 싸운 전쟁, 우리 모두가 그 시대에 지지하였으리라 생각되는 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의 베트남 착취는 강화되었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최소한 150만, 아마도 2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북쪽에서 굶어 죽었다. 이 때 베트남 인구는 1천4백만 미만이었고 프랑스로의 쌀 수출은 알콜 음료 산업에 연료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과시즘에 대항한 전쟁 한가운데에서 인간 생명을 그처럼 뻔뻔스럽게 경시했던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존 케네디 하에서 대량의 고엽제 사용이 베트남에서 시작된 것과 같으며 승려 계급에 반대한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상속자로서 자신들은 인식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했던 프랑스 확장주의자들이었던 것과 같다. 그들은 개화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었던 Jules Ferry가 프랑스에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 교육을 국민 전체적인, 세속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때도 그랬다. 그는 나중에 첫 번째 프랑스 수상이 되어 식민주의와 그 강화를 그의 주요한 강령으로 삼았다. 그는 열등한 사람들을 문명화하는 것이 프랑스의 의무라고 느꼈으며 1883년 5월 15일 베트남에 보호관계를 부과하기 위해 전면적인 원정을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극보수주의자들은 이 식민적 팽창에 반대했다. 베트남이 사라져 톤킨, 안남, 그리고 요친 차이나라는 이름 하에 포함되었을 때 베트남인들은 정체성을 잃었고 프랑스인들은 그들을 안남인들이라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과 개화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공간적 확장이 프랑스의 “문명화시키는 사명”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혁명이 “명백한 운명”으로 변한 것과 같다. 1885년 휴에 있는 계국 도서관을 불태운 사람들이 문명을 가져온 같은 프랑스 군대였는데 그 도서관에는 고대 두루마리와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서양의 개화된 자유주의적인 지혜가 아니라 수천년 된 동양 지혜의 저장소였다.

1831년 프랑스 혁명의 제자이고 “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책을 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테네시 엠프스에서 “문명의 사막을 가로 지른 승리에 찬 행진”을 보았다고 적었다. 그가 3,000 혹은 4,000 명의 군인들이 그들 앞에서 방황하는 원주민 종족, 즉 “채소니언 민주주의” (피에 굶주린 야만인과 식인종을 절멸시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던 남자의 이름을 본 따 지어진)에서 살아남은 운 좋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내몰고 있었을 때 즉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뛰어난 정교함으로, 침착함으로, 합법적으로 박애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

고 가장 중요하게 유럽인 세계의 눈으로 보아 도덕의 커다란 원칙을 단 한가지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절멸시켰을 때 토크빌은 감동 받았다. 토크빌은 인간성의 법칙을 그 보다 더 잘 지키면서 사람들을 죽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푸쿠야마의 프랑스와 미국 혁명의 자유주의적인 원칙의 공간적 확장은 더 이상 명료하게 공표될 수 없었다.

문명과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영국은 인디아에서 지역문화를 수세기 동안 지지해 왔고 페르시아, 그리스, 씨티안, 아프칸, 타르타르 그리고 몽골의 침입에도 살아남았으나 영국의 자유주의적인 원칙들의 완벽함에는 견딜 수 없었다고 푸쿠야마가 주장할 인도 마을 땅의 공동소유제라는 지역 사회의 전통을 파괴했다. 영국의 문명 아래에서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동안 대농장이 재빨리 생겨났다. 그리고 1867년에 영국자유주의의 첫 번째 과실이 나타났다: 인도의 오리사 구역에서만 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다. 이 기근은 덧붙이 자면 퇴행적인 전통(유럽적인 가치에 의한)과 함께 한 인디아에 토착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기근은 유럽의 개화된 자유주의가 가져왔으며, 민주적인 국가 원칙의 공간적 확장에 의해 초래되었다.

위대한 혁명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프랑스는 알제리아의 노예제와 무정부에 대해 십자군 전쟁을 선언했고, 질서있는 문명을 세운다는 미명 하에 아랍 마을들의 공동 들판, 야만적이고 개화되지 못한 오트만 지배자들이 손대지 않았던 땅을 파괴했다. 모슬렘 이슬람 문화가 우세하는 한 대대로 내려온 씨족과 가족의 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팔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개화된 프랑스 지배 50년 후에 거대한 대농장이 다시 나타났고 기근이 알제리아에서 나타났다.

문명인가 야만인가?

위에서 나는 유럽 자본가 문명, 특히 가장 개화된 문명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원주민을 살해했고 기초 조직 원리로서 군국주의를 요구하는 집중화된 세계 체계를 창조했는가를 말했다. 유럽 "자유"의 공간적 확장은 제3세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것이 모두 다 과거의 것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오늘날 가장 강하다. 유엔에 의하면 1990년대에 5세 이하 1억명 이상의 아이들이 설사, 백일해, 과상풍, 폐렴, 홍역 같은 값싼 백신이나 단순히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쉽게 예방될 수 있는 질병으로 죽었다. 유니세프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약 2만 내지 4만명의 5세 이하 아이들이 제3세계에서 쉽게 예방될 수 있는 질병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10억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영양실조인데, IMF가 취한 긴축 경제 조치로 제3세계에서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많은 나라에서 국민총생산(GNP)이 하락했다. 세계 무의 70%가 20%의 사람들 손에 있는 반면에 10명 중의 1명은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40년 전보다 2차 대전 40년 후에 4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는데 이것도 2차 대전 후 자유주의적 가치의 공간적 확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야겠다. 세계가 군대에 1년에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성인 3명 중 1명은 문맹으로 읽거나 쓸 줄 모르고, 4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으며, 우리는 생명을 지지해주는 지구의 생태학적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세상의 모순과 비극은 주변부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지속적인 곤경에 대한 가장 무유한 지구인들의 무시와 관심의 결여에 의해 더욱 더 비극적이고 불합리하게 돼가고 있다.

이런 세상에 지속적인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세계 체제의 가장자리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라 딱지붙여지고 협상에서 배제되는 한 그들은 음식과 정의를 찾기위해 다른 대안이 없어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비이성적인 체제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문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지금 무엇이 문명이 아닌지는 안다 (최소한이 지구 상에 있는 10억명 혹은 그 이상의 비참한 사람들에게 지구적인 중앙집중화, 초국적 기업, 군국주의적인 국가들에의 증가하는 의존 그리고 국제적인 악의 축이 의미하는 것은 지옥에서의 삶이다). 우리들은 더욱 더 이 문명이 인간의 부를 낭비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지구의 자연자원을 약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가고 있다.

단기 수익성에 기초한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폭력이 위기라고 평화, 정의 운동가들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사회적 부가 효율과 수익성이라는 개화된 합리적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한 군국주의, 인간 생명의 야만적인 과멸 그리고 자연 생태계의 고삐 풀린 파괴가 증가할 것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위해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에 터널을 만드는 낭비적인 거대한 프로젝트,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과 캐나다본토를 연결하는 다리, 월드컵 경기장 파밍 건설 등으로 인간의 막대한 사회적 부가 건설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몇백개의 다국적 기업이 오늘날 이 막대한 사회적 부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단지 몇사람만에게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개화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이들 기업들은 성장하거나 죽어야 한다. 나는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라고 말한다. 오직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만이 우리를 생태학적으로 생존 가능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 우리가 탈집중화하고 우리의 막대한 사회적 부를 자주관리하에 가져와야 할 세상.

평화 운동은 세계 체제의 현존 구조를 명백하게 문제 삼아야 한다. 평화와 정의가 우리 종의 영구적인 유산이 되는 순항(pro-active) 세계를 우리가 건설하고자 한다면 자본 축적 명령이라는 부조리에 군국주의가 근거하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 군국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한국, 일본 혹은 아시아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군국주의 국가들을 비합법화하고 탐욕스런 초국적 기업들을 사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시민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의 맥도널화를 끝장내는 유럽중심적인 자본가 문명의 변형을 이루어내는 데 국제적인 운동이 요구된다.

과거 해방 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기서 극히 중대하다. 몇년 전에 미국에 대항한 베트남 군대의 보 구엔 지압 총사령관이 베트남이 미국을 제배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요약해 말했다. 그의 리스트에서 미국내 반전 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년 간 베트남은 이 운동이 그들의 전장 전술과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장려했다.

군국주의적 정신이상과 기업의 탐욕에 도전하면서 세우는 평화운동엔 긍정적인 미래상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통일은 여기서 절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율적인 한국 사회 발전과 탈군사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창조함으로써 한국은 모범적으로 빛날 것이다.

독특한 한국 문화 유산의 원기 회복과 현존하는 세계 체제 자본가 명령으로부터의 탈퇴는 동반

하여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다. 새로운 세계 경제 시스템의 건설(혹은 아도르노가 주장하였듯이 반체제)은 군국주의라는 질병으로부터 이 행성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은 그러므로 현존하는 세계 체제의 퇴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 평화 운동의 건설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평화 행사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평화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 행동해야 할 입장에 있다. 비이슬람 국가로서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인들의 나라인 한국은 전 세계의 정부와 활동가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곳 사람들이 중대한 평화 운동을 창조해내면 정부들이 주목할 것이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 행동으로 나서기까지 감동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활동가들은 더욱 더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평화 공세가 국제적으로 퍼져 무시와 동료들을 책임감있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시 혹은 미국의 고급 관리들이 여행하는 곳이 어디든지 항의가 가능한 한 전투적이고 대규모여야 한다.

미국 군대를 압박할 필요성은 별로 제기되지 않는 반면 많은 세계 평화 운동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 창립 원칙이 평화인 독일의 녹색당은 미국의 전쟁을 합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히틀러 이래 독일 전투부대를 외국에 처음으로 배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독일 제국 야망에 대한 진정한 격려이다).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예는 독일 사인당이 1차 세계 대전 때 카이저를 지지했고 알제리아에서의 전쟁을 프랑스 공산당이 지지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무시 행정부의 잘 못된 분석인 빈라덴과 히틀러의 비유를 그대로 반영해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라도 적절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믿기 어렵게도 이라크에 전쟁을 하려는 무시의 계획에 대한 미국의 주요한 반대는 펜타곤 상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나온다. 이들은 무시 행정부의 고급 관리들 사이에 있는 “이라크 히스테리”를 문제삼는 단호한 막후 운동을 수행해왔다.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들을 고무해왔다. 오늘날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 영화인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다. 이제 한국의 운동이 국제적으로 드러날 때이다. 1980년대에 여기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지도자들은 투쟁에 사람들을 연대하게 할 방법을 찾았고 해답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19일 동안 데모한 결과 요구가 실현되었다.

민주화 운동이 곧 많은 아시아 나라들에서 활발해졌다: 1988년 버마, 1989년 중국, 1990년 네팔, 그리고 1992년 태일랜드. 이러한 반란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오늘날 모두 다 1986년 필립핀 혁명에서 구조된 용어인 “인중의 힘 people power”으로 간주되는데 이것 자체가 1980년 광주 봉기에 의해 고무된 것이었다. 평화를 위한 그런 국제적으로 현저한 행동을 고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현재, 무시 행정부는 세계를 마음대로 다룰 굉장한 기회를 갖고 있다. 그들은 이 기회를 “강제

국가들”을 다루는 기회로 즉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침투에 문을 여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용하려 한다. 이라크외의 어떤 정부도 (내가 아는 한에서) 아프칸에서의 전쟁을 반대하지 않았다. 몇 개의 유럽 정부들, 코피 아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쟁이 이라크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나는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들이 모두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년간 미국과 영국은 끊임없이 이라크를 폭격해왔다. 이들의 단계적인 확전이 일어나 신속하고 쉽게 승리한다면 무시와 동료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고 중국은 아마 목인할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주요한 지역 경쟁자인 일본과 남한이 크게 파괴되고 재건되어야 할 동안 아마도 다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 동의할 것이다. 현재 WTO 회원인 중국은 미국의 침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 국가로서 북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의 상황은 미국과 소련이 중거리 퍼싱과 SS-20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했던 1980년대 초 유럽과 비슷하다. 새로운 미사일 배치는 미국과 소련이 러시아 혹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지 않으면서 유럽에서 “제한적인”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런던, 로마, 파리, 본에서 거리로 나서자 대규모의 평화 운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유럽의 평화 운동은 냉전이 종식되게 했다.

독일 녹색당의 등장과 수많은 데모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고르바초프가 러시아의 장군들을 서유럽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 평화적으로 변화할 공간을 줄 것이라고 납득시키게 도왔고 동유럽 완충 국가들을 놓아주고 무기 경쟁을 종식하게 도왔다.

오늘, 동북아에 비슷한 상황이 존재해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 전쟁이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눈에 띄는 평화 운동이 여기에 없다면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마음 편하게 “테러”와의 전쟁을 북한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악의 축”이란 연설, 뉴욕 타임즈 기사들 그리고 미국 지도자들에 의한 성명의 형태로 시험 기구를 띄웠다. 만약 시끄럽고 전투적인 항의가 한국인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무시가 방문했을 때 충분히 시끄럽고 전투적인 항의가 없었다면) 미국은 그것을 그들 군국주의적 일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아프카니스탄에서처럼 한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싸우는 “제한”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최소한의 미국인 사상자라면 미국 대중은 그런 전쟁을 확실히 달갑게 여길 것이다.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남한 군대에 행사하는 한 전쟁 발발은 더 쉽게 일어날 것이다. 나는 외국 군대가 자기 군대를 지배하게 하는 어떤 나라도 알지 못한다. 군대 지휘권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군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한국인들을 또한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요구는 한국에서의 전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낼 뿐 아니라 북한 지도자들이 남한과의 대화에 다시 나서게 용기를 북돋울 것이다.

* 각주의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님의 이메일 katsiaficas@hot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